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1, pp.217-226, January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217

JCCT 2024-1-25

간호학과 신입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of Nursing Freshmen on Interpersonal Skills

박미라*, 김정숙**, 제남주***, 윤지원***

Mee-Ra Park*, **Jeong-Sook Kim****, **Nam-Joo Je*****, **Ji-Won Yoo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본 연구는 G도 소재의 J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0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IBM SPSS/25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9, p=.005), 자기자비(r=.38, p<.001), 정서인식명확성(r=.28,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위계적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 순이었다. 자기자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4.5%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간호학과 신입생, 대인관계능력, 불안정 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figure out the effect of unstable an adult attachment, self-merc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on interpersonal skills targeting nursing freshman. From 27th of March 2023 to 7th of April 2023, data gathered from the nursing freshman of university in J city, G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IBM SPSS/25, the data was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 t-test, ANOVA and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 Interpersonal skill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unstable adults attachment(r=-.19, p=.005), and also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mercy (r=.38, p<.001)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r=.28, p<.001).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that effects on interpersonal skills of survey subjects, self-mercy was the factor predict one's interpersonal skills the most, extroverted, mixed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in order. The higher self- merc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re, the bigger influences interpersonal skills have and 24.5% of explanatory power. For nursing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skills was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so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skills should be figured out.

Key words : Nursing Freshman, Interpersonal skills,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mercy,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10월 27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27, 2023
Accepted: Nov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jwyoon@cs.ac.kr
CHARIS College of Liberal Arts, Changshin University, Korea

1. 서론

우리는 인생에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안에서 건강하고 효율적인 발달이 필요하다[1]. Erickson (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19~40세는 청년기로 주요 과제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2].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립감,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3]. 청년기의 초반은 대학생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

간호대학생 또한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4] 이들이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면 간호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5].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대인관계능력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간호업무의 적응도를 높여 이직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6] 실제 간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 함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신입생 단계부터 정확히 진단되고 함양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경제적 자립 등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친밀한 대상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성인애착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성인애착은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특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안정적인 경향성을 의미한다[7].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적절한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8] 최근에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의 직접적인 경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9].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매개변인 중 한 가지는 자기자비이다. 자기자비란 개인이 고통과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갖는 온정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0].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이 갖추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와 보편적인 인간성이 타인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11]는 점에서 자기자비와 대인관계능력은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 대인관계 능력은 여러 연구를 통해 연결 경로가 있음이 밝혀졌다[12]. 정서인식명확성은 정서지능의 한 요인으로 감정에 관련하여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신경증과 사회적인 불안감 등이 낮아지고 적극적인 사회적지지를 구하려고 행동하며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등이 높아져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13].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 관련된 능력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인관계능력과 관계되는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였고,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능력 관련 연구는 에니어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14],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 돌봄에 미치는 효과[15], 공감증진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공감인식,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16] 등 주로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 국한된다. 게다가 간호대학생 중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17], 간호대학 신입생의 사회적 관계망, 대인관계역량 및 문제해결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18],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적응[19] 등 주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불안정 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G도 소재의 J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선행연구[18]에 근거하여 G*power version 3.1.7[23]을 이용해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효과 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예측변수 12개를 기준으로 160명이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0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총 118문항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불안정 성인애착 36문항, 자기자비 26문항, 정서명확성 11문항, 대인관계능력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종교, 동아리활동, 성격의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20]이 개발하고, 김상현의 연구[21]에서 번안한 친밀한 관계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36문항의 7점 Likert 척도이며, 애착회피 18문항, 애착불안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회피 정도가 심하며, 낮을수록 안정애착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Brennan 등의 연구[20]에서는 불안차원 Cronbach's α=.91, 회피차원 Cronbach's α=.94로 나타났고, 김상현[21]의 연구에서는 불안차원 Cronbach's α=.89, 회피차원 Cronbach's α=.85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2로 나타났다.

3) 자기자비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 [10]가 개발한 자기자비 척도(SCS)를 김경의 등[22]이 번안·타당화 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6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자기친절-자기판단 10문항, 보편적인간성-고립감 8문항, 마음챙김-과잉동일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eff의 연구[10]에서 Cronbach's α= .92였고, 김경의 등의 연구[22]에서 자기자비 척도의 Cronbach's α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23]이 개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의 연구[24]에서 번안 및 타당화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정과 이훈구의 연구[24]에서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9였다.

5)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 [25]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의 연구[26]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40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처음 관계 맺기 8문항, 권리주장 8문항, 자기노출 8문항, 정서적지지 8문항, 대인갈등다루기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77-.87이었고, 김창대와 김수임의 연구[26]에서 Cronbach's α=.64-.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모집공고문을 학생휴게실에 부착하고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 절차,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익, 동의 철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휴게실의 모집공고문의 QR코드를 통한 온라인(Google)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G도 소재의 J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개인정보를 위해 개인 식별코드를 사용하였고,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된 후 파쇄 또는 소각됨을 설명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는 서술 통계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평균 21.63세였고, 19세 이하가 11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자'가 160명(78.4%)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142명(69.6%)으로 과반수였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162명(79.4%)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성격은 혼합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명(50.0%)으로 가장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불안정 성인애착은 평균 2.92점(7점 만점)이었고, 자기자비는 평균 3.26점(5점 만점),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 3.24점(5점 만점),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0점(5점 만점)이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19	111(54.4)	21.63±5.98
	20-29	77(37.7)	
	≥30	16(7.8)	
Gender	Male	44(21.6)	
	Female	160(78.4)	
Religion	Yes	62(30.4)	
	No	142(69.6)	
Club activity	Yes	42(20.6)	
	No	162(79.4)	
Character	Extroverted	34(16.7)	
	Introverted	68(33.3)	
	Mixed	102(50.0)	

표 2.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Table 2. Subjects'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n=204)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Unstable Adult Attachment	Anxiety	1-7	1.06	6.61	2.96±1.06
	Avoidance	1-7	1.00	6.39	3.30±0.85
	Total	1-7	1.00	7.00	2.92±1.18
Self-Compassion	Self-kindness	1-5	1.40	5.00	3.22±0.72
	Common-humanity	1-5	1.25	5.00	3.38±0.61
	Mindfulness	1-5	1.13	5.00	3.20±0.69
	Total	1-5	1.00	5.00	3.26±0.84
Emotional Clarity	Total	1-5	1.00	5.00	3.24±0.74
Interpersonal	Getting	1-5	1.00	4.38	3.04±0.60

Skills	Involved for the First Time				
	Claim of Displeasure	1-5	1.38	5.00	3.59±0.62
	Self -exposure	1-5	2.38	5.00	3.55±0.55
	Emotional support	1-5	2.88	5.00	3.87±0.42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1-5	2.50	4.88	3.80±0.48
	Total	1-5	1.50	5.00	3.50±0.68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불안정 성인애착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7, p=.023).

자기자비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정서인식명확성은 연령(F=4.10,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증 결과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동아리활동(t=-2.21, p=.02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91, p=.022), 사후검증 결과 '19세 이하'가 '20-29세'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았다. 또한 성별(t=-2.21, p=.028)과 성격(F=8.66,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성격이 외향적과 혼합적인 경우가 내향적인 경우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표 3].

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9, p=.005), 자기자비(r=.38, p<.001), 정서인식명확성(r=.28,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인식명확성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25, p<.001), 자기자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0, p<.001). 불안정 성인애착은 자기자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8, p<.001)[표 4].

표 4.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n=204)

	1	2	3	4
	r(p)			
1	1			
2	-.38(<.001)	1		
3	-.25(<.001)	.30(<.001)	1	
4	-.19(.005)	.38(<.001)	.28(<,001)	1

1. Unstable Adult Attachment
2. Self-Compassion
3. Emotional Clarity
4. interpersonal skills

5.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전 Durvin-Watson 값은 1.948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간 자기 상관은 없었고, 공차한계는 .74~.98으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8~1.343으로 10을 넘지 않아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 위계에서는 대상자의 제 특성, 2단계 위계에서는 불안정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대상자의 특성 중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과 성별, 성격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성격유형 중 외향적(β=.261, p=.001), 혼합적(β=.250, p=.001)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외향적 성격이 가장 유의한 예측요인이었고, 그 다음 혼합적 성격이었다. 모델 1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10.8%였다(F=5.93, p<.001).

모델 2에서는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불안정 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을 위계로 투입하였다.

성격유형 중 외향적(β=.272, p<.001), 혼합적(β=.214 p=.002), 자기자비(β=.288, p<.001), 정서인식명확성(β

=.199, p=.0003)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 순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24.5%였고, 모델 1에 비해 13.7% 증가하였고,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21, p<.001)[표 5].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평균 2.92점(7점 만점)이었고,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조사한 선행연구[27]에서는 2.79점(5점 만점)으로 100점 환산으로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간호대학생은 41.7점(100점 환산)이며 선행연구[27]에서는 55.8점(100점 환산)으로 간호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간호신입생은 회피와 불안 애착이 낮고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므로 여자 비율이 높은 간호신입생이 낮게 측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신입생의 자기자비는 평균 3.26점(5점 만점)이며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선행연구[28]의 3.30점(5점 만점)과 비슷하다. 일반적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간호학과 신입생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는 모두 중간보다 조금 낮았다. 자기자비는 문제와 갈등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고 대인관계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간돌봄을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가 중요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 3.24점(5점 만점)으로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29]의 3.62점(5점 만점)보다 낮았다. 정서인식명확성은 나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분명하게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교육과정을 통해 향상시켜 대상자 간호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0점(5점 만점)이었다.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30]의 3.50점(5점 만점)과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은 '19세 이하'가 '20-29세'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았고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외향적과 혼합적인 경우가 내향적인 경우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중간 정도이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31]를 뒷받침하였다. 대학생들의 성인 애착이 성격, 정서, 대인 관계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진로발달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32]를 토대로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을 줄이고 안정된 애착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자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자기자비가 대인관계 유능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33, 34]를 뒷받침한다.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정서표현 능력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 선행연구[35]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능력에 영향 요인으로 성격유형 중 외향적, 혼합적,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 순이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성인초기의 다양한 대인관계와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대상자와 의료진, 병원관계자와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간호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중간 수준으로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 치료적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자기자비와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Table 3. Differences in Unstable Adult 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Interpersonal Skills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Age(yr)*	≤19[a]	2.97±1.27	0.24 (.786)	3.22±0.79	0.27 (.762)	3.12±0.72	4.10 (.018)	3.38±0.67	3.91 (.022) a<b
	20-29[b]	2.87±1.08		3.29±0.90		3.36±0.75		3.66±0.69	
	≥30[c]	2.81±1.10		3.37±0.86		3.56±0.62		3.59±0.61	
Gender	Male	3.28±1.09	2.27 (.024)	3.09±0.81	-1.55 (.122)	3.14±0.62	-1.13 (.260)	3.30±0.74	-2.21 (.028)
	Female	2.82±1.19		3.31±0.84		3.27±0.77		3.56±0.65	
Religion	Yes	2.89±1.13	-0.24 (.805)	3.18±0.89	-0.88 (.376)	3.21±0.77	-0.37 (.706)	3.39±0.65	-1.55 (.122)
	No	2.94±1.21		3.29±0.81		3.26±0.73		3.55±0.69	
Club activity	Yes	3.02±1.16	0.59 (.553)	3.09±1.04	-1.46 (.143)	3.02±0.81	-2.21 (.028)	3.52±0.81	0.17 (.862)
	No	2.90±1.19		3.30±0.77		3.30±0.71		3.50±0.65	
Character*	extroverted[a]	2.69±1.10	2.74 (.067)	3.33±0.86	1.56 (.211)	2.98±0.88	2.67 (.072)	3.73±0.66	8.66 (<.001) a,c>b
	introverted[b]	3.19±1.24		3.11±0.79		3.27±0.63		3.24±0.60	
	mixed[c]	2.82±1.15		3.33±0.85		3.31±0.74		3.60±0.69	

표 5. 대인관계능력의 다중회귀분석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Interpersonal Skills (n=204)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236	.192		16.82	<.001	1.819	.363		5.01	<.001
연령(≥30 Criteria)										
≤19_더미	-.236	.174	-.172	-1.35	.176	-.128	.162	-.093	-0.79	.430
20-29_더미	.041	.178	.029	0.23	.817	.096	.165	.068	0.58	.560
성별(남성 Criteria)										
여성_더미	.168	.112	.101	1.50	.134	.110	.104	.066	1.05	.292
성격(내성적 Criteria)										
외향적_더미	.488	.137	.266	3.55	<.001	.499	.130	.272	3.84	<.001
혼합적_더미	.342	.103	.250	3.32	.001	.292	.095	.214	3.06	.002
불안정 성인애착						.015	.039	.025	0.37	.711
자기자비						.235	.055	.288	4.23	<.001
정서인식명확성						.184	.062	.199	2.96	.003
R2	.130					.274				
Adj-R2	.108					.245				
R2 change amount	.130					.144				
F(p)	5.93(<.001)					9.21(<.001)				
F change amount(p)	5.93(<.001)					12.91(<.001)				

Durbin-Watson=1.954, VIF=1.034~3.742, Tolerance=.26~.96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24.5%이었다. 구체적으로 간호신입생의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G도 J시의 1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근접모집단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학과 신입생의 개인적인 특성(성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을 반영하여 대인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Cicchetti, D, “Fractures in the crystal: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the emergence of the self”, *Developmental Review*, vol. 11, pp. 271-287, 1991.

[2] Erikson, E.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9.

[3] G. J. Lee, et al,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Seoul:Soomoonsa. 2011.

[4] Y. H. Kwon, C.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3, No. 2, pp. 216-229, 2002.

[5] Thomas,R., Health communication. New York, NY:Springer, 2006.

[6] Beck, C. T.,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caring for dying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6, No. 9, pp. 408-415, 1997.

[7] M. Main, & N. Kaplan, & J. Cassidy,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66-104, 1985.

[8] S. J. Kang, & Y. H. Choi, “The Influence of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Abilities: The Intermediate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Social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8, No. 3, pp. 53-68. 2011.

[9] Y. J.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6.

[10] Neff, K. D.,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Vol. 2, No. 2, pp. 85-101, 2003.

[11] Neff, K. D., & Beretvas, N. S. “The role of self-compassion in romantic relationship”. *Self and Identity*, Vol. 12, No.1, pp. 78-98, 2013.

[12] G. S> Lee, Impact of college students' emotional experience on their mental health: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9.

[13] H. W. Lee, & D. M. Yeum, & M. H. Lee, “Impact of College Students' Mood Awar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0, No. 2, pp. 416-434, 2014.

[14] S, N, Kim, The Effectiveness of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elf-identification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3.
[15] J. O. Jeong,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6.
[16] K. E. Kwon, Effects of the Empathy Enhancement Program on the Empathic Awaren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of Nursing Students, doctor's thesis, Daegu: DaeguCatholic University, 2017.
[17] Y. H. Oh, Influence of interpersonal ability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 : mediating effect of ability, master's thesis, Gwangju: Nambu University, 2019.
[18] K. E. Lee, & H. S. Choi, "Effect of Social Network,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Competency of Nursing College Freshmen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the Post-Corona Era",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3, No. 2, pp. 103-113, 2023.
[19] J. W. Park, & Y. H. Ju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yle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9, pp. 696-709, 2018.
[20]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21] S. H. Kim, Adaption of the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Scale into Korea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Item Response Theory Approache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22] K. E. Kim, et al.,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al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3, No. 4, pp. 1023-1044, 2008.
[23] Sal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P.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pp. 125-154). Washington, D.C.: APA, 1995.
[24] S. J. Lee, & H. K. Lee, "The Research on the Validation of the Trait Meta-Mood Scale: The Domain Exploration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1, No. 1, pp. 95-116, 1997. (UCI: I410-ECN-0102-2009-180-007471371)
[25]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No. 6, pp. 991-1008, 1988.
[26] C. D. Kim, & S. I. Kim,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Student Study, Vol. 35, No. 1, pp. 83-95, 1997.
[27] S. H. Kim, S. H. Park, & M. J. Baek, Mediating Effects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and Nunc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30, No. 1, pp. 1-8, 2021. (DOI: 10.12934/jkpmhn.2021.30.1.1)
[28] H. J. Jang, & Y. J. Lee, The Influence of Self-compass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pp. 77-83, 2021. (DOI: 10.17703/JCCT.2021.7.2.77)
[29] Y. J. Kim, & N. W. Chung,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1, No. 2, pp. 395 - 409, 2016.
[30] J. E. Choi, & G. J. Kim, The interpersonal skill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overuse of smart phon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AJMAHS)*, Vol.9, No.7, pp. 397-408, 2019. (DOI: 10.35873/ajmahs.2019.9.7.036)
[31] M. J.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3, pp. 1051-1068, 2021.
[32] Downing, H. M., & Nauta, M. M., Separation-individuation, exploration, and identity diffu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6, No. 3, pp. 207-227, 2010.
[33] K. H. Kim, & H. K. Lee, The Effect of Positive

Emo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Exploration of path model among Experiential Avoidance, Self-Compassion, and Cognitive Empath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6, pp. 83-107, 2015. (DOI: 10.15703/kjc.16.6.201512.83)

[34] H. G. Jeong, S. H. Noh, & H. J. Cho, Effect of Mindful Lovingkindness-Compassion Program (MLCP) on Depression, Rumination,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Social Connectedness, in Depression-Pron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22, No. 2, pp. 271-287, 2017. (DOI: 10.17315/kjhp.2017.22.2.003)

[35] S. K. An, & Y. J. Chung,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8, No. 3, pp. 719-741, 2016.